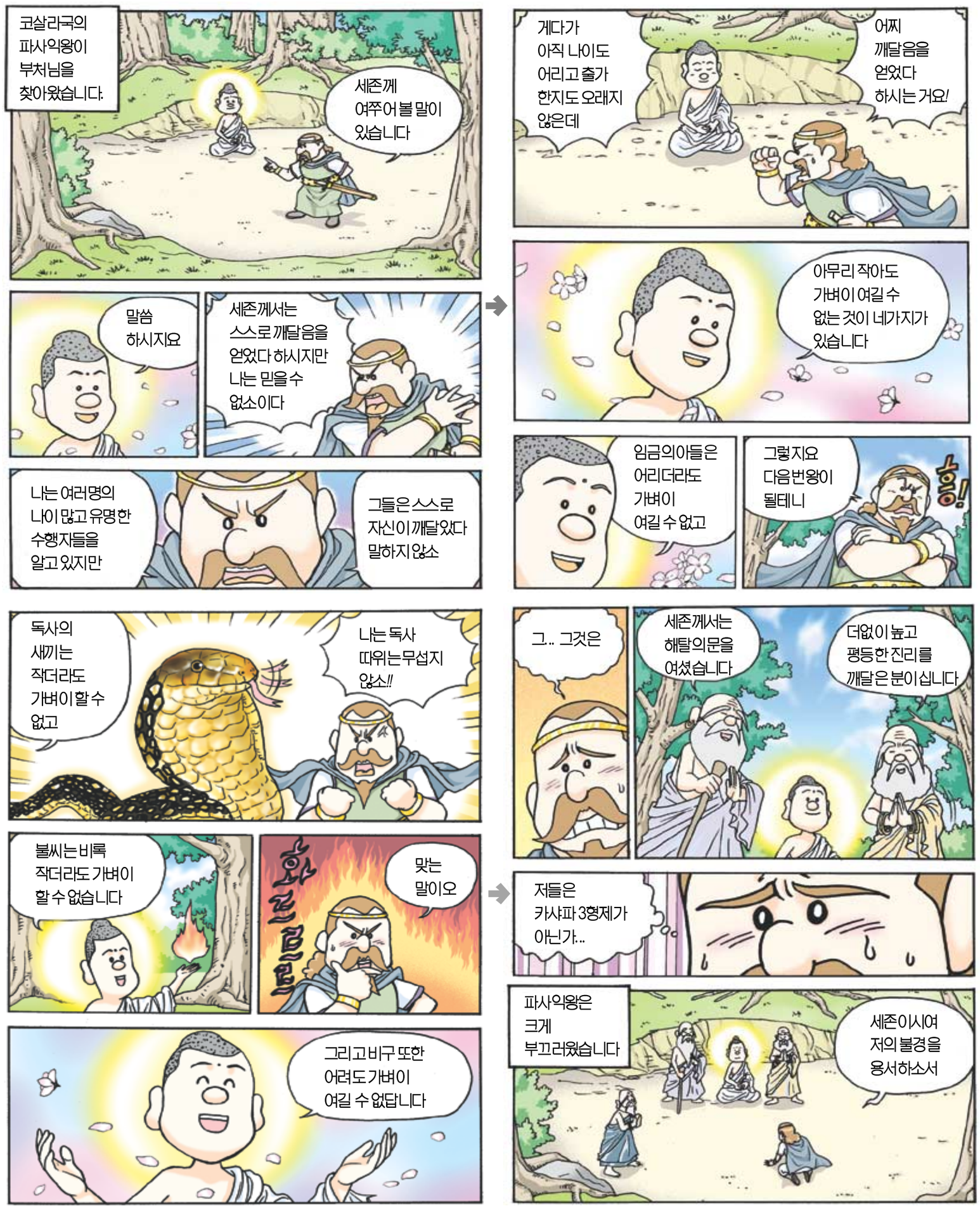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9화)

"어린 수행자라도 깔보지 말라"

〈출전 : 잡아함경 제 46: 2-334하〉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발 밑을 보라

자기를 바로 봅시다

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선재는 정말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이 나라에 사는 것이 안전한가 하는 고민을 심각하게 해본다. 한 발 한 발 떼고 사는 일이 이렇게 불안할 수가 없다. 더구나 이번에는 사고도 아니다. 누군가가 불을 지르는 바람에 생긴 일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발 밑을 살펴보고 살아야 할 지경이다. 선재는 '조고각하'라는 말이 떠올랐다. 큰절 승방의 댓돌 위에서 우리를 다그치는 말이다. "발 밑을 보라!" 신발을 제대로 벗어놓았는지 살피라는 말은 곧 스스로를 반성하라는 경책으로 바뀌어 들린다. "정신차려라!"

선재의 불안한 마음 때문에 떠오른 그 말이 어쩌면 그렇게도 사건과 맞아떨어지는지. 그가 불을 지른 이유가 너무 황당하다. 혼자 죽기 싫어서란다. 뇌졸증을 앓고 나서 몸이 불편해지자 온갖 미움과 원망이 바깥으로 향했다는 것이다. 자신이 아픈 탓을 왜 남에게 모두 돌리는가? 자기 발 밑을 보지 않고 남의 발 밑만 쳐다보고는 울분을 쌓는 그에게 어떤 말을 해 주어야 할 것인가?

한 수좌가 각명 선사에게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 "네 발 밑을 보라"고 대답했다. 바로 지금 네가 진리 자체 속에 있다고 말한 것이다. 진리는 멀리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다는 말이다. <무문관>의 이야기다. <벽암록>에서도 '발 밑에서 대광명이 나온다는 것을 알라'고 하였다.

한없는 진리의 광명이 퍼져나와야 할 그 발 밑을 절통한 원한의 불길로 채워 놓았으니 그가 무척 안타깝다. 자신을 바로 알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는 일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자기를 바로보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성철스님의 당부가 새삼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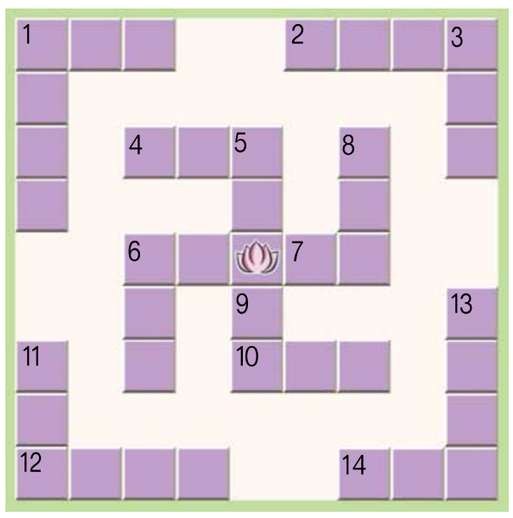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기 밖에서 진리를 구하면, 이는 바다 밖에서 물을 구함과 같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영원하므로 종말이 없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종말을 걱정하며 두려워하여 헤매고 있습니다."

〈1982년 부처님오신날법어〉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교리퍼즐



가로

1. 불교의식 가운데 하나. 법고를 두드리며 추는 춤. 2. 불법의 수호신. 신들의 왕이기에 붙은 말. 4. 죽은 후에 행할 불사를 생전에 미리 닦는 재. 6. 어리석고 둔함. 7. 스님의 사리나 유골을 넣은 석종을 뜻함. 10. 서방극락 안락정토와 같은말. 고통과 괴로움은 없고 오직 편안한 쾌락만이 있는 세계. 12. <승만경>의 중심인물. 인도 사위국 파사익왕의 딸. 14. 자비로운 마음과 위대한 동정심. 자비심과 유사.

〈410호 「교리퍼즐」 정답〉

세로

1. 지난 2월 24일 조계종 제 31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스님. 수덕사 주지. 3. 경전의 결집이 처음 이루어진 곳(제1결집 또는 오백결집). 인도 마갈타국의 고대 수도. 5. 물질적인 재물을 타인에게 배푸는 것. 6. 세속의 여성 신도를 뜻함. 남자신도는 우바새라 함. 8. 아미타불이 내영인접(來迎引接)하는 동적(動的)인 그림. 9. 지혜의 눈. 사물을 바르게 관찰하는 눈이라는 뜻. 11. 어린이가 출가하면 흔히들 부르는 말. 13.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할때를 뜻함. 대표적인 예는 부처님이 연꽃을 들자 가섭존자가 미소를 지었다는 염화미소.

"자비의 등 지혜의 등"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주름등

보관상태

팔모조립등

공단등 (비단등 실크등)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종 등

만월등

※ 연등에 사찰이름을 인쇄할 경우 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